

4

칠지도 (七枝刀)

백제왕이 왜 왕에게 준 선물

많은 일본 사학자들은, 서기 269년 진구우(위지에 기록된 히미코 여왕)의 사망으로 부터 서기 390년 호무다(應神)의 즉위 사이의 그 “실종된 이주갑(二周甲)”을, 이소노카미(石上)신궁에 안치되어 있는 칠지도의 명문(銘文)을 해석해서 메꾸어 보려했다.¹ 그 칠지도는, 일본서기(NI: 251)에서 백제 조정의 서기 372년에 호무다에게 보내 주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칼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칠지도에 새겨진 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 될수 있다: “태화(泰和) 4년 5월 (혹은 4월) 16일, 병오날 정오(丙午正陽), 백번을 두들겨 단련한 철로 이 칠지도를 만들었다(造百練鐵七支刀). 이칼은 대대로 적군을 섬멸하는 (모든 무기들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왕에게 보내준다(宜供供侯王), x x x 이 제작한 것이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先世以來未有此刀). 장수 할 것을

¹이소노카미 신궁은 나라현의 텐리시에 있는 신궁인데, 타케미카주치 신이 진무(神武)에게 선사해 주었다는 신검을 위해 건축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모노노베(物部) 씨족은 이 신궁에서 모시는 신을 자기네들의 씨족신으로 간주했었다.

생각하며, 백제왕(혹은 거룩한 부왕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백제 왕세자 世子寄生聖音)은 왜의 왕을 위해(故爲倭王)이 칼을 만들게 했으니, 후세에 전해 보여주기 바란다(旨造傳示後世).”¹⁾ (김 정학, 1986, 도 참조 해볼것.) 이 칼이 제조된 년도는 서기 369년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명문에 의하면, 왜는 백제의 속국(候王의 나라)으로 취급된것 같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그 명문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백제왕이 천황께 칼을 헌상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우에다 마사아키(사에키, 1977, 가 인용)는 “그 칠지도가 백제왕에 의해 왜의 통치자에게 『하사』된것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본 사학자로서는 예외적인 존재다.

우에다는 “그가 하는 해석의 근거로서, 명문에 나타나는 공(供)이라는 글자가 백제왕에 종속된 통치자(候王)를 서술하고 있으며, 또 그 명문 자체가, 『(이 칼을) 후세에 전해 보여 주기 바란다(傳示後世)』라는 구절을 읽어 보아도 알수 있듯이, 뒷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말하는 명령조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에키(1977)는 그 명문을 신하의 관계에 있는 후왕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의미로 해석 해서도 안되고, 또 명치시대 이래 수많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천황께 “헌상”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에키는 그 명문이, 단순히 백제와 왜의 지배자들 사이에, 성실하고 상호존경하는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히라노의 주장을 수용 하려는 것 같다.² 히라노(197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²킬레이(197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마토 지역에서의 정복국가 창건은, 예측한대로, 거의 그 기록이 없다. . . . 4세기 일본에 대한 기록된 자료는 아주 빈약하고, 현존하는 기록들이란 한국쪽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이들 중에 가장 오래 된것이, 일본에 아직 보존되어 있는 한국제 『칠지도』이다. 서기 369년 날자가 새겨진 그 칼의 명문에는, 백제의 왕과 왕세자가 『왜』의 왕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바란다는 표현이 새겨져 있다. . . . 5세기 내내, 백제는 한국땅의 두개의 대국, 즉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해서, 왜왕과 거의 항상 연맹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369년 명문에 거론된 『왜왕』이 야마토 땅에 근거를 가진 존재 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

“일본서기의 본 줄거리는, 야마토가 신라나 백제보다
 우위에 있었던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 . .
 일본서기가 한국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나라가 모두 동격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아무 수정없이 포함시켜 놓았다.
 예컨대 일본서기 오오진조에 나타나는
 백제기(쿠다라기)로 부터의 인용문은,
 『백제왕이 직지왕자를 보내
 선왕때 이루어진 친선관계를 공고히 했다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라고 말하고 있다 . . .
 특히 오오진조의 본 줄거리 에서는, 고구려왕이
 『야마토에 사절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고 써 놓고서는,
 또 한편 에다가는 부지불식간에, 그 사신이 가지고 온 편지속에
 『고구려왕이 일본국에 교시를 했다 (高麗王教日本國也)』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 버렸다.
 이런 사실로 판단해 본다면, 『조공을 바쳤다』라는 표현은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얘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과장한 것이라고 생각 할수 있다 . . .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보면,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 사료의 신빙성이 커지는 것 같다.
 동시에 이 내용들은,
 일본서기의 표현이 놀랄만큼 서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서기가 오(吳)나라에서 왔다는 중국사절 경우에도,
 『조공을 했다』는 건방진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³

다. 그로부터 몇십년 뒤에 한반도에서 싸운 왜군의 출처 또한 분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무리들이 야마토 땅에 위치한 국가조직을 대표 했었다고 상정 할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것이다.”

³이것은 일본서기 닌토쿠 58년에 (NI: 296), “오나라와 고구려가 함께 내조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과, 유우라쿠 6년에 (NI: 347) “오나라가 조공 사절을 보냈다”

아무튼 간에, 윤동석(1990: 21)에 의하면, 이 칠지도는 백제의 철제품 생산기술이 고도로 발달 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4세기 초에 개발된 철물 주조기술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섬세한 모양을 한 커다란 철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철제품을 만들어 내려면, 철광석을 용해시키는 것부터, 녹은 쇠물을 주조하고, 열처리를 하거나, 철과 강철을 연결 시키고, 철물에 조각을 하는 등, 온갖 처리기술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 . 지금 거론한 그 다양한 처리 기술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백제 전문가에 의한 그 칠지도 제작 기술은 낙랑의 것보다 우월했고, 따라서 일본의 철 가공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일본서기(NI: 251)는 백제 조정어, 칠지도와 함께 칠자경(七子鏡)도 오오진에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코벨부부(1984: 22-2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흥미를 자아내는 사실은, 이두 물건이 지금까지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 . . [1984년에 발견된] 직경 20cm의 인물화상 동경(人物畫像銅鏡)은 현재 . . . 와카야마(和歌山) 스다하찌만 신사(隅田八幡神社)에 보존되어 있다⁴. . . . 그위에 새겨진 명문은 『계미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서기 383년, 443년 혹은 503년을 지적하고 있다. . . . 동경 가상자리에 쓰여진 한자들은 그 뜻이 좀 애매하다. 즉, 대왕년(大王年) 양의 해에, 이 시사가 궁에 거처하고 있는 남동생왕(男弟王)에게(주려고) . . . 장수를 생각하며, 그는 [斯麻] 두 사람에게 200한의 백동을 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것을 분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사기에 언급된,

라는 기록을 지적하는 것이다. 애스턴(NI: 296n)역시, “중국 혹은 고구려 까지도 일본에 『조공』을 했을리가 없다. 물론 선물 같은 것은 교환되었을 것이고, 양측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조공 받은 것이라고 선전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에 대해 항상 거만하게 말하는 중국관습을 흉내내서 기록을 했던것 같다.

⁴하찌만은 호무다(應神)의 신격화된 영혼과 동일시 되었고, 하찌만 신사의 중심적인 신으로 숭상되었다. 오늘날 일본 전국에는 25,000개의 하찌만 신사가 있다.

백제로부터 오오진에게 전해진 그 선물 일수 있을까? 그 왕은 . . . 일본의 지배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⁵

사카모토(坂元義種, 1991: 108-112)는 그 명문이 사마(斯麻)라는 두 글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해란 서기 503년이고, 따라서 대왕은, 묘지명에 사마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된 백제의 무녕왕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카모토 자신은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동생 왕은 케이타이(繼體, 오호도노 스메라 미코토, 男大迹) 혹은 부레쯔(武烈)를 의미 할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남동생(男弟)이라는 표현은 위지의 왜인전 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히미코(卑彌呼)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히미코의 국정을 도와 주었다 (有男弟佐治國)” (쯔노다와 그드리치, 1953, 참조.)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NI: 346)는,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이 서기 461년에 『형왕으로서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위해 (以脩兄王之好)』 곤지군(昆支君)을 왜의 유우라쿠(雄略)에게 보냈다고 기록한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3.2.8) 무녕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은 개로왕(재위 455-475년)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남동생이란 것은 케이타이(繼體: 서기 450-531년?) 이거나 아니면, 더 가능성이 크게는, 부레쯔(武烈: 서기 489-506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 명문은 사마(무녕왕)가 두 사람을 시켜 이 거울을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자의 “거울경”자(鏡) 대신에 “마침내 경”자(竟)를 사용 했는데, 이는 두 글자가 다 “경”(중국 말로는 “징”)이라고 발음되기 때문 일것이다. 사실 무녕왕능에서 출토된,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 하나와 네마리의 달리는 형태의 짐승을 조각한 동경 에서도, “거울을 만들었다”라는 표현(尙方作竟眞大好)이

⁵거울에 새겨진 명문은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 男弟王 在意紫沙加高時 斯麻 念長壽(奉) 遣開中費直 今州利 二人等 取(仰)白上同 二百早 作(取)此竟(鏡)이라고 읽을수 있다. 사카모토(坂元義種, 1991: 117) 참조. 이진희(1982)는 그 명문을 大王年 . . . 所此竟矣 未年八月日로 읽는다.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서도 “마침내경”자(竟)가 “거울경”자(鏡) 대신 사용되었다. 김 정학 (金廷鶴, 1981: 291) 과 사카모토 (坂元義種, 1991: 61) 참조.